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두려워 말고 말하라

성경: 사도행전 18장 4-11절

Tag: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행18:4-11)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으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과 마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강을 건너는 누우떼를 보면 건너긴 건너야 하는데 거친 물결을 바라보며 주저거린다. 물 속에는 눈만 빠끔히 내 밀며 누우를 삼키려는 악어떼가 누우가 강물에 뛰어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 온통 전쟁터다.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1년 반이 훌쩍 지나도록 계속 전쟁중이다. 양쪽 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전쟁 외

의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진대, 차마 두려워서 전쟁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결단을 내린 몇 마리의 누우가 먼저 뛰어들어 악어의 밥이 되어준다. 그래야 나머지 누우들이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여러번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자랐던 누우들이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먼저 뛰어든 것일 수 있다.

사람도 비슷하다. 참고 참다 마침내는 행동에 옮긴다. 자기 의견을 말한다. 처음에는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합리적이고, 마땅하다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행동이나 말도 서툴 수 있다. 더구나 처음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도 두려워 말고 말하라.

마땅한 것이라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분위기란 무엇일까? 바울에게서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바울에게서 새로운 분위기라면 그것은 열정이다. 복음에 대한 열정.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 개인은 그럴 수 밖에 없는 열정이 있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까지 잡아다 옥에 가둘 생각이었다.

그는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팽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도 바울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로 회개하고 일련의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 하였다.

그는 이 결단으로 수 많은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시장 잡배들에게까지 수모를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막아설 수 있는 자들은 없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시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 덕분에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

바울은 믿음의 새로운 양식을 전파했다. 율법보다 복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파한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세상은 바뀐다.

오늘날 적잖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음해성 말들이다.(이념주의자들의 말+평상이 반기독교 세력이 힘을 합했다. 그래서 조직적이 되었다. 그들 중에 바울 같은 자가 이정훈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국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면서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구닥다리 문화를 탑재하고 있다. 마치 그래야만 경건한 것인 양. 용어나 인사말이나 태도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물론 구닥다리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다 보면 만민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만의 분위기가 한결같다.)

요즘들어 일터 목회를 하다 보니 과거와 달리 교회문화가 복음전파에 걸림돌이 되고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많다.

그래도 지금의 교회들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물론 그 모든 변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교회가 가치 중심으로 문화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헌금이다. 기부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다. 혼쾌한 과거와 달리,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으며, 사람마다 다르고 변수들이 많아지다보니, 쉽게 순전한 마음으로 헌금하기가 쉽지 않다. 헌금은 분명하게 본인이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것이며, 수입이 적은데도 헌금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성을 모아 헌금하는 버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헌금은 적금과 같아서, 하늘나라 창고에 적금이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으로 환산해서 갚아 주시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복을 노리는 헌금은 헌금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킨다. 헌금은 말 그대로 헌신적인 것일 때 그 댓가로 보험성이 주어진다는 것이기에 경건한 삶이

빠진 헌금은 의미가 없다. 복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헌금의 기본 정신이 아니다.

다음으로 불신자들에게 주일성수가 부담스럽다. 주일 성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주일 성수의 목적의식이 중요하다. 예배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다. 카톨릭이나 무당의 굿은 예배를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신교는 자기 자신 자체가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교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다. 다만 대변인이다. 한마디로 통역관이다. 곰곰이 제대로 통역했나를 따져볼 필요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진지하게 경청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설교 만큼은 반복 청취가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복해서 들어야 비로소 가닥이 잡히고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게 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가치는 전도인데, 전도란 앞의 핵심 가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그 핵심가치를 잘 이해하고 유익을 얻으며, 그 유익을 나누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 되고 있고,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문화가 율법주의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담임목사가 사임하게 되면 대형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속내는 재산 다툼이면서 겉으로는 명분 싸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형교회는 이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아마 그게 잘 되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명에서 150명 규모의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그 정도면 나름대로 유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적은 소규모 교회들은 아마도 앞으로는 일터목회자가 운영할 가능성이 커져갔다. 그야말로 가족교회 같은 형태다.

작은 교회의 장점은 큰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필요 없게 된다. 큰 군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종교적 이슈나, 쇼맨십이나, 대형 프로젝트, 큰 헌금, 유명인사 등이 필요하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고 당연한 것들인데, 자연스럽게 축구장 현상이 생겨난다. 핵심 요원들이 땀 흘려 뛰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환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단지 그런 것들은 엄밀히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작은 교회는 교회의 핵심 가치에 집중하기 좋다. 교회의 목적이 경건 생활이고, 든든한 영생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작은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과거의 일터교회는 큰 교회에 손을 벌리는 단점이 있었고, 요즘도 시골교회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서히 작은교회들이 일터교회로 변모하고 있다. 일터교회는 교회 운영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어서 교회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큰 교회도 많고 중간 단계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중간 단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크거나 작으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여러분 힘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전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로 핍박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회당 바로 곁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흔쾌히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 주었다. 기존의 회당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차지하게 되었고, 바울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한 때 부터이다.

언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도착했기 때문이다. 우군까지 얻게 되어 담대해진 것이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자, 드디어는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들도 생겨났고, 결국에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바울은 그러나 더 담대해졌다. 다른 도시에서는 경항 없이 도망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여러 돕는 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정착시키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강론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세상은 흥흥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 이단도 아니고, 구닥다리 율법종교도 아니고, 복음과 영생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복음에 있고,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나를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밖에 없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구조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야 공동의회가 중요해진다. 그래서 초신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다.

노회에는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위원회가 하는 일들이야 이전 임원들이 꾸며놓은 것이고, 해당 임원들은 다음 위원들이 할 일을 정해 놓는다. 서너명이 해당 모든일을 독단적으로 해 낸다. 그러니 책임감 있게 장기적으로 사명 감당하듯이 하는 사람이 없다. 또 노회는 총회의 축소판이어서 1년 임기 총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결국 상임 총무나 직원들이 좌지 우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총회 직원들이 상당수 이념적인 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니 개교회가 총회를 따라가지 않는다. 결국 덩치는 큰데 교회마다 각개전투 하는 식이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